

타자와의 열린 만남의 사유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사상과 《시간과 타자》

강영안

벨기에 루뱅대 객원교수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는 존재사건의 익명성, 주체의 출현,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는 신체성, 음식, 노동, 여성성, 에로스, 아버지의 존재 등 철학적으로 거의 무시돼 온 일상적 주체들이 인간의 존재 규정과 관련해서 다루어진다. 레비나스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인간은 타자와의 열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자임을 보여준다.

존재의 익명성과 존재자의 출현

주체의 형성 과정을 논의할 때 레비나스는 '존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존재는 하이데거가 말한대로 명사적이기보다 동사적 사건이다. 동사적 사건으로서 존재는 그러나 하이데거가 본 것처럼 '존재자의 존재'이기 이전에 '존재자 없는 존재', 즉 존재자의 출현 이전, 존재자를 엄습한 익명적 사건이다. 마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익명적으로 있는 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존재는 '춤'이나 '혜택', '은혜'나 '선물'(하이데거)로 이해되기보다 어두움과 공포로 이해된다.

존재의 익명성은 주체의 출현으로 극복된다.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명사적 존재의 출현. 이것을 레비나스는 '홀로 서기'라고 부른다. 홀로서기의 주체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며 사물들을 자신의 향유(享有)의 대상으로 삼는다. 레비나스는 사물과 주체의 관계를 '염려'나 '관심'으로 그리기보다는 '향유'로 표시한다. 주체는 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향유한다. 향유는 주체가 세계와 맺는 일차적 관계이다. 세계는 주체에 대해서 '도구성의 총체'(하이데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먹거리의 총체' 또는 향유의 대상이다. 그런데 향유의 주체는 언제나 홀로 있는 주체이다. 홀로 있음은 주체의 주체성을 형성한다. 홀로 설 수 있음은 전적인 자유를 뜻한다. 하지만 이 자유는 동시에 커다란 짐이며 두려움이다. 주체는 존재 소유를 통해 존재의 무거움을 경험한다.

향유의 주체가 거주하는 공간은 거주와 노동의 공간이며 지배와 권력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과는 다른 차원, 존재와는 다른 차원이 인간의 삶에 개입됨을 레비나스는 고통과 죽음의 경험을 통해 그려준다.

“죽음은 주체의 힘, 익명적 존재 사건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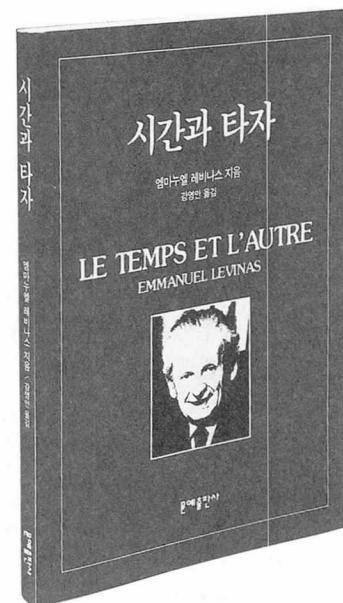
에서 홀로서기를 통해 가능했던 힘. 현재의 현상과 빛 가운데 표현된 힘의 한계가 된다... 죽음의 접근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게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주체는 주체의 지배권 자체를 잃어버린다... 사전의 준비도 없이... 어떤 계획을 짤 새도 없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죽음은 계획을 짤 수 없음을 뜻한다. 죽음의 접근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 '타자성'을 지닌 것, 향유를 통해 우리가 동화(同化)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닌, 그것의 존재 자체가 곧 타자성인 어떤 것과 우리가 관계함을 지시한다.”

시간과 타자, 다른 이와 의 만남

죽음을 통한 절대 타자와의 관계는 인간에게 미래를 열어준다. 익명적 존재 사건으로부터 홀로 선 주체의 출현은 여기, 현재 순간에 자기와 관계하고, 순간만을 창조할 뿐 미래를 갖지 않는다. 홀로서기의 주체는 오직 현재 순간을 자기것으로 장악하고, 자신의 존재를 실현할 뿐이다. 홀로서기에는 오직 현재 순간만 있을 뿐 미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 미래이다. 미래의 외재성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그것이 다가온다는 사실로 인해 공간적 외재성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미래는 손에 거머쥘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덮쳐오고,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를 사로잡는다. 미래, 그것은 타자이다. 미래와의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 자체이다.”

그런데 미래가 시간의 한 요소가 되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와 관련되어야 한다. 현재 순간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사이에는 하나의 심연이 놓여 있다. 이 심연을 도대체 어떻게 매울 수 있는가? 미래를 향해 손벌리고 그것을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홀로 선 주체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에서 전적으로 다른 타자만을 직면할 뿐이다. 그러면 절대 타자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현재와 관계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레비나스는 '다른 이'와 얼굴을 마주한 만남에서 찾고 있다.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에서 특이한 것은, 타자를 단지 다른 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이다. 타자는 나의 공감과 연민,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타자가 되고, 내가 나에게 타자가 되어주는 상호적인 관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항(項)을 서로 대치할 수 있는 형식적인 의미의 타자에 불과하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나에게 열어주는 다른 이와 의 관계는 그러므로 그의 성격과 외모, 심리와 상관없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이다. 이때, 다른 이는 예컨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일 수 있다. 타자는 나와 대칭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나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사람이다.

타자성과 여성성

레비나스는 자아의 홀로서기 혹은 존재의 전체성이 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에로스의 경험을 들고 있다. 전적으로 다른 것, 다른이의 타자성,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타자가 존재 사건 속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성적인 것'과의 관계, 즉 성애(性愛)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성관계는 합일과 혼음의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타자와의 만남이고, 나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의 타자성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성교의 감동은 하나됨에 있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에로스에는 이론적 인식이나 투쟁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레비나스는 해석한다. 고통과 죽음의 가까움을 통해 열린 타자의 공간

레비나스는 누구인가

'타자성의 철학' 전개한 독창적 사상가

엠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1906~1995)는 유대계 출신 철학자로 현대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레비나스는 1906년 1월 12일(러시아 구력으로는 1905년 12월 30일)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1995년 12월 25일 아침 파리 보종병원에서 8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그가 걸어온 삶의 행적은 다양하고, 서양철학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혁신적이었다.

레비나스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히브리성경과 러시아 문학을 읽으면서 자라났고, 독일철학 특히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존재사유의 전문가였다. 1923년 스트라보르대학 철학과에 입학해서 1930년 프랑

스에 귀화한 후 줄곧 프랑스철학과 함께 숨쉬고 생각해온 철학자였다. 프랑스의 신문 <리베라시옹>의 표현대로 네 문화의 철학자였던 셈이다.

결국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는 인간이 자기실현의 과정속에서 만나는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집중됐고 '타자성의 철학'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전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레비나스의 저서로는 《존재에서 존재자로》(1947) 《시간과 타자》(1947) 《전체성과 무한》(1961) 《타인과 인간주의》(1972) 《존재와 다른 것 또는 존재 사건 저편》(1974) 등 25권이 있다. ❖



생전에 그의 서재 앞 책상에 앉아 있는 레비나스.

은 이제 에로스를 통해 인격적인 타자, 즉 전적인 타자로서의 다른이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된다. 그것은 어떤 매개자나, 지위나, 이해 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가 아닐 뿐더러, 소유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에로스가 '실패'(사르트르)로 보이는 까닭은, 그것을 지배와 소유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에로스는 지배하고 소유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레비나스는 생각한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대상으로 인식된 타자는 더이상 타자가 아니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타자와의 만남은 주체로서 나의 존재에 위협을 주는 것인가? 죽음은 결국 주체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의 타자성 속에서 나를 상실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너일 수가 있는가? 그 가능성을 레비나스는 이제 '아버지란 존재' 또는 '부자관계'에서 찾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인 낯선 이와 관계', 또는 '나와, 그 사이 나에게 낯선이가 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묘사한다. 주체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그의 이기주의, 자신에게로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 주체는 이제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다.

아이의 출산을 통해 주체는 자기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아이의 출산으로 새로운 미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내가 홀로 미래를 체험할 때는 나 자신의 존재 가능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오트세이가가 오랜 여행 끝에 결국 자기가 살던 섬이 타카로 되돌아오듯이 나는 나의 테두리로 되돌아와 결국 늙고 만다. 그러나 에로스를 통해 나에게 감추어진 미래를 찾아 나서고 이 미래를 아이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다. 아이를 통해서 과거는 절대성을 잃게 되고 절대적 미래의 차원이 열린다. 그리하여 시간은 다시 젊어지고 푸르름을 띠게 된다.

타자의 형이상학

레비나스의 철학이 '타자의 사유' '타자의 철학' 혹은 '타자의 형이상학'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자아 또는 주체를 또 다른 계기를 통해 해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그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비판할 때, 주체가 밖에 설 수 있으려면 먼저 안으로의 복귀, 내면성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내면성을 지닌 주체의 성립없이 안과 밖, 내재성과 외재성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초월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성적 관계를 타자와의 관계의 전형으로 든 것도, 주체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아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시간과 타자》 강영민 옮김,
문예출판사/A5신/180면/6000원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학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극수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투어트 지음

■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 1 「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 2 「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스
- 3 「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 4 「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 5 「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스

▶ 추후 발간 예정

- 6 「수학의 본성」: 이언 스투어트
- 7 「지능의 출현」: 윌리엄 갈빈
- 8 「세포의 진화」: 린 머글리스
- 9 「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 10 「뇌 속의 세계」: 콜린 블랙모어
- 11 「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 12 「시간의 시작」: 조지 스무트
- 13 「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 14 「입자화학」: 메러리 켈만
- 15 「인지과학」: 다니엘 데닛
- 16 「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 17 「사회 변화의 적응」: 메리 베이트슨
- 18 「생활사의 유행과 방향」: 스티븐 골드
- 19 「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 20 「적응」: 조지 윌리엄즈
- 21 「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 22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 (02) 866-8800 (교환 317)
영업 (02) 861-4818 / (02) 853-5608